

# 동물복지 삼겹살·달걀 등 롯데백화점, 건강 먹거리 확대

돼지고기 등 동물복지 식품 선배  
박람회 개최... 축산물 할인 판매



동물복지 삼겹살.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은 무항생제 한우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획득한 돼지고기, 닭고기 등 '친환경 동물복지' 식품으로 안전한 먹거리 소비 확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본지 3월8일자 13면 참조〉 '동물복지'는 건강하게 자란 축산물이 사람의 건강에도 안전하다고 판단, 동물을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하고 도축과 운반 과정에서 동물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개념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2012년 2월부터 동물복지 마크를 운영해 동물복지 인증 심사를 통과한 농장, 운송차량, 도축장을 이용한 상품에만 동물복지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전국 147개의 동물복지 축산농장이 운영 중이다. 달걀을 생산하는 산란계 농장이 95개를 차지하며 돼지 사육 농장은 12개소다. 한우는 아직까지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이 없다.

해마다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과동과 지난해 '살충제 달걀' 사건 등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축산물들이 주목 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 살충제 달걀 과동에서 비교적 안전했던 곳이 바로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농가였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믿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전점에서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물 박람회'를 열고 무항생제 한우와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돼지고기, 닭고기를 40% 이상 할인 판매한다.

대표상품으로 '무항생제 한우 등심 1등급(100g)'을 7980원, '동물복지인증' 삼겹살(100g)과 닭고기(볶음용 1kg)를 각 2780원, 7980원에 판매한다.

롯데백화점은 평창, 정선, 영월 등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자란 무호르몬·무항생제 한우브랜드인 '대관령 한우'를 6년째 백화점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 '동물복지인증' 돼지고기와 닭고기 전문매장을 전국 주요점포에 각각 4월, 5월에 오픈할 예정이다.

롯데마트와 슈퍼도 '동물복지인증' 닭고기와 달걀을 판매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2015년 대형마트 최초로 닭고기 전문 생산업체 '참프레'와 연계해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닭고기를 선보였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매년 높아지며 올해 1~2월 '동물복지인증' 닭고기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370% 신장하며 일반 닭고기 판매 신장률 60%를 훨씬 웃돌았다.

롯데슈퍼도 동물복지 닭고기와 달걀 총 9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동물복지 달걀의 경우 올해 2월까지 전년 대비 108% 신장했으며 롯데가 직접 기획한 P B 상품인 '조이스엘 프라이م 유정란'의 경우는 전년 대비 700% 이상 신장했다.

롯데마트와 슈퍼는 앞으로 친환경 상품과 동물복지인증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업사이클링 브랜드 '레:코드(RE:CODE)'가 렌탈서비스 'Re:nt the Only One'을 실시한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

## 버려질 옷의 재탄생... 재조합해 렌탈의류로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  
윤리적 소비문화 등 트렌드 맞춰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코오롱FnC)은 업사이클링 브랜드 '레:코드(RE:CODE)'가 한남동에 위치한 시리즈코너 매장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옷의 여정을 테마로 렌탈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레:코드'는 3년차 재고를 리사이클(재활용)하되 소량생산, 독특한 디자인 등으로 원래보다 가치를 더한 패션아이템을 선보이는 업사이클링 브랜드다.

자칫 버려질 수 있는 재고 의류를 해체하고 재조합 해 완전히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어 낸 것으로 국내는 물론 친환경을 생각하는 윤리적인 소비 문화가 정착된 유럽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회사측은 윤리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이번 렌탈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는 고객이 매장을 직접 방문해 의상을 착용해보고 렌탈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이용 가격은 3일 기준 아우터 4만원, 자켓 3만원, 상하의 각각 1만 5000원, 원피스 3만원 등이다. 렌탈서비스 이용 후 구매를 원할 시 해당 착장을 맞춤으로 제작해 3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이달 말까지 기부 이벤트도 진행한다. 렌탈서비스를 이용비용을 1000원부터 고객의 자유의지에 따라 지불하고 해당 수익 전액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부하는 것이다.

한편 코오롱FnC의 남성 어반 캐주얼 편집 브랜드 '시리즈'도 지난 1월 20일부터 한남동에 위치한 시리즈코너에서 렌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상품을 일상에서 미리 입고, 생활해보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신중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평일에는 10여명, 주말에는 20여명 정도가 렌탈서비스 문의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해 방문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 KT&G '릴'·'핏', 전국 판매망 구축

구매 희망 소비자 14만명 넘어  
공급량·판매처 넓혀 수요 맞춰



릴(Fiit)과 핏(fiit). /KT&G

KT&G 필연형 전자담배 '릴(Fiit)'과 전용담배 '핏(Fiit)'이 인기로 힘입어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KT&G는 '릴'과 '핏'을 기존 서울지역에서 전국 6대 광역시와 경기도 6개 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판매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KT&G '릴'과 '핏'은 그동안 서울지역 편의점 7700개소에서 판매됐다. 오는 14일부터는 전국 주요도시에 설치된 '릴 스테이션' 21개소에서 7일 동안 사전판매를 진행하고, 21일부터는 지정된 판매처 3900여 곳에서 정식 출시된다.

지역별로 인천·경기도는 GS25, 대전·세종은 세븐일레븐, 대구는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부산·울산은 CU, 광주·전주는 CU와 미니스톱에서 각각 판매된다.

지난해 11월 20일 공식 출시된 KT&G

'릴'은 스마트폰의 절반 가량인 90g의 무게로 휴대성을 높이면서도 연속 사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온도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작동하는 등 강점을 갖춰 소비자들의 선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용담배 '핏'은 기존 일반 담배와 비슷한 맛을 구현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왕섭 KT&G 제품혁신실장은 "최근 자체 조사 결과, 서울 이외 지역에서 '릴'을 구매 하고 싶은 소비자가 약 14만명 이상으로 인기가 높아 판매 지역 확대를 결정했다"며 "향후 공급량 확대와 판매처를 확보해 빠른 시간 안에 전국 모든 지역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대상 청정원 '이달의 식단' 서비스 오픈

홈페이지 월별 식단표 제공

대상 청정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월간 식단 정보를 제공하는 '이달의 식단'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의 식단' 서비스는 매일 반복되는 식단 구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고민을 덜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 말 청정원 홈페이지 회원 대상으로 신규 서비스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로 '식단 제공 서비스'가 꼽혔다. 이에 따라 청정원은 균형 잡힌 식단 정보를 제공해 가족의 식사를 책임지는 주부들의 고민을 덜고, 나아가 건강한 식문화를 조성해간다는 계획이다.

대상 청정원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콘텐츠를 제공받아 건강한 제철 재료를 활용한 월별 식단표를 제공한다. 식단뿐만 아니라 각 메뉴의 레시피도

함께 제공된다. 식단 내 메뉴명을 클릭하면 청정원 셰프들의 전문적인 레시피나 청정원 회원들이 직접 등록한 실용적인 레시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찬희 대상 마케팅본부 부장은 "청정원은 이미 '냉장고를 채워줘' 등의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먹거리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앞장서왔다"며 "향후 다양한 레시피 콘텐츠를 보강하고 식단별 칼로리나 영양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하며 '이달의 식단' 서비스 활용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인용 기자



매주 화요일은 '하나로 화요장터' 13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화요장터'를 맞이해 대표상품 등을 선보이고 있다. 농협유통 소속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는 매주 화요일 '화요장터'를 열어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농협유통

# 황사시즌 100억 규모 '공기청정기 대전'

이마트  
단독상품·행사카드 추가 할인 등

이마트는 봄철 황사시즌을 맞이해 100억 규모의 대대적인 공기청정기 대전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삼성 블루스카이5000을 44만9000원에, 코웨이 AP-1016을 21만9000원에 각각 이마트 단독 상품으로 내놓는다. 행사카드(삼성·KB국민·신한·B C·NH농협·우리·IBK기업·SC이마트) 구매 시 2만원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단독상품 외에 엘지 퓨리케어360, 다이슨 퓨어쿨링 TPO3, 위너스 타워 등도 행사카드 할인, 가격대별 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할인 혜택에 만나볼 수 있다.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대기오염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공기청정기 매출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이마트 공기청정기 매출은 전년 대비 213%나 급증, 3배 이상 늘었다. 올해 1~2월도 374%나 오르는 등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기존 가정용 위주였던 공기청정기가 최근에는 차량용까지 그 시장을 넓혀나가고 있다.

기존 공기청정기 제조 업체인 유니아는 물론 각종 필터 제조로 유명한 3M, 차량용품 업체 불스원 등이 차량용 공기청정기 시장에 진출한 것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30개 매장에서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시범 판매한 결과 계획대비 150% 달성율을 기록했다.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마트는 이달부터 관련 상품 판매를 전점으로 확대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